

BYC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트러스트자산운용의 입장문

3월 24일 열린 BYC 주총에서 2대 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이하 트러스트)의 주주제안은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트러스트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BYC 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수주주들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트러스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친 BYC 경영진과의 공식 비공식대화를 통해 극심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당내부거래 의혹 해소 *주주환원 확대 *유동성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트러스트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 경영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저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단 한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러스트는 이번 주총에서 부당내부거래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위원 선임을 포함해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한 배당금 증액과 자사주매입, 액면분할 등 4가지 주주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소수주주를 무시하는 꼴수를 부렸습니다.

당초 저희는 기타비상무이사겸 감사위원 선임을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감사위원은 사외이사로 한정한다고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결국 대주주 지분율에 대해 합산해서 3%를 적용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을 제한함으로써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의 선임을 원천봉쇄한 셈입니다.

트러스트는 회사의 꼴수에 밀려 결국 감사위원겸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주주제안했지만 이마저도 회사측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 트러스트는 소수주주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소수주주캠페인을 펼친 것은 물론 소수주주들을 직접 찾아뵙고 저희의 취지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BYC는 후진적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물론 소수주주들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 오늘 주총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트러스트는 BYC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비록 트러스트의 주주제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소수주주들이 보여준 열망에서 저희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주주제안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찬성비율은 발행주식총수기준으로 평균 21%에 달했습니다.

안건별로는 배당금 증액(20.4%) 액면분할(19.7%) 감사위원선임(24.5%) 자사주 매입(19.9%) 등 입니다.

BYC 의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3%에 달하고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내부지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주주제안을 지지해주신 소수주주표는 전체 소수주주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이 보여준 회사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열망

또한 폭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톤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기대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트러스톤은 앞으로 BYC 에 대한 주주활동과정에서 이번에 소수주주들이 보여주신 열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3. 트러스톤은 BYC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주주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총결과에 관계없이 트러스톤은 BYC 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약속합니다.

이번 주총에서 소수주주를 무시하는 회사의 꿈수 때문에 비록 감사위원이라는 내부 감시자를 통한 견제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회사 외부에서 법이 보장한 소수주주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감시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BYC 전현직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신 소수주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